

“예술 넘어 차별화된 디자인 선보인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마스터플랜

‘디자인을 만나다’ 9월7일 개막 테크놀로지관 등 4개 전시관 송성일 교수 등 큐레이터 참여 총감독 “진화하는 디자인 제시”

오는 9월 개막하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마스터플랜이 27일 공개됐다.

메가폰을 잡은 나건 총감독(홍익대 디자인경영 교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10회를 지속한 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가 유일하다”며 “올해 광주에서 함께 열리는 순수 비엔날레와 어울리면서 예술을 넘어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9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62일간 비엔날레전시관 등에서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Technology관 △Lifestyle관 △Culture관 △Business관, 총 4개 기획전시로 구성된다.

Technology관은 집, 사무실, 산업현



27일 광주 동구 벤틀리관호텔에서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마스터플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장, 미래사회에 구현된 기술과 디자인을 선보인다.

큐레이터를 맡은 송성일 한서대 국제디자인융합전대학원 교수는 “역사적으로 기술과 디자인은 공생 진화했다”며 “시대는 기술 집중적 소비에서 미학적이고 감성적인 디자인을 고려한 소비로 발전했다. Technology관은 이 흐름을 시각화해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한 미래의 삶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Lifestyle관은 일상생활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디자인 사례를 보여준다. 큐

레이터를 맡은 김선아 금오공과대 디자인공학전공 교수는 “친환경 생활 방식, 웰니스, 개인 맞춤형 상품과 공간 등에 적용된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체험존을 설치, 발전된 디자인의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관에서는 문화와 디자인이 함께 그려낸 다양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큐레이터를 맡은 최민영 성신여대 서비스·디자인공학과 교수는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선을 탐구했다. 기존의 예술과 차별

화된 디자인만의 영역을 제시하겠다”며 “특히 디자인에서도 코로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다. 치유, 집콕, MZ세대 중심으로 변모한 생활 속 디자인과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K-Culture에 디자인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Business관은 디자인을 통해 경영, 도시, 산업, 브랜드를 이끄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관람할 수 있다. 큐레이터를 맡은 한우성 ㈜유니버설트렌드센터 대표 이사는 “새로운 시대의 혁신을 이끄는 원

동력으로써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을 제시하겠다”며 “디자인을 통해 기업과 도시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변화된 가치를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시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공모전인 Rde Dot 어워드(Award)의 수상작들을 전시해 국제화 원년을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나건 총감독은 “Rde Dot 어워드에서 수상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광주 출신 작가들의 협업 작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순수 비엔날레 폐막 후 이어지는 만큼 개인적 영감에 머무르는 예술을 넘어 진화하는 디자인, 해법을 제시한 디자인의 특징을 선보이려 한다. 관객이 고객이 되는 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입장권은3월부터 티켓링크, 네이버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는 오는 4월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에 동시 입장 가능한 통합 입장권도 마련했다. 광주시민은 입장권 우대할 인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비엔날레사무국(062-611-5040, 5043, 5142)으로 문의. 글·사진·도선인 기자

광주 관광자원 활용 여행상품 발굴

광주관광재단, 공모전 개최 당선팀 최대 2000만원 지원

광주관광재단은 여행상품 발굴과 관광객 유입을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은 공모전을 통해 예술, 역사, 문화, 생태 등 광주 관광자원을 활용한 1박 이상 체류형 단체여행상품을 발굴하고 상품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자격을 갖춘 여행사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16일까지 이메일(arttour@gjto.or.kr)로 보내면 된다. 1차 서류

심사, 2차 PT발표를 거쳐 공모가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 결과는 3월20일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모전에 최종 당선되면 △시상금 및 시범운영비 800만원 △성과에 따른 관광객 유치 실적 지원금 12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지원된다.

김진강 대표이사는 “엔데믹 이후 국내외 여행 수요를 광주로 유치하고, 제14회 비엔날레, 제10회 디자인비엔날레 등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축제를 연계한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 판매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면서 “공모전에 당선된 여행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재단 차원의 국내외 홍보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고려인 공동체 견인... 고려일보 100년사 ‘한눈에’

창간 100주년 기획전 개최

내년 2월까지 월곡문화관 신문자료·사진·활자본 전시

월곡고려인문화관 개관 2주년을 맞아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획전이 열린다. 기획전은 삼일절 104주년인 3월1일 시작해 내년 2월28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된다.

주요 전시물은 김병학 월곡고려인문화관이 25년 동안 고려일보 기자로 활동하며 수집한 100년의 역사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문자료와 신문사 직원들의 기록 사진, 활자본 등 희귀 자료들이다.

고려일보는 3·1독립만세운동 4주년을 기념해 1923년 3월1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간된 대표적인 고려인 모국어 신문이다. 창간 당시 책임 주필은 이백 초 선생이었고 이상, 오성목, 이광, 김진, 최호림, 박동희, 남창원, 황동훈, 김홍집, 윤세환 선생 등이 활약했으나 1930년대 소련의 정치적 숙청과 강제이주 과정에서



대부분 투옥됐고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황동훈 선생이 선봉을 찍던 한글납활자를 보따리에 싸서 중앙아시아로 가져갔고 이에 따라 강제이주 6개월만에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신문을 발행했다.

1938년 5월 키즐오르다에서 ‘레닌기치’로 제호를 바꿨으며 ‘레닌기치’는 유일

하게 전 소련에서 구독할 수 있는 한글 신문이었다. 당시 주 6회 발행한 일간신문으로 한인 집단거주지인 타슈켄트, 키즐오르다, 두산베, 비슈케크 등지에 지사를 두고 4만부가 발행되던 적도 있었다.

1978년 8월 현재 본사가 있는 알마티로 이전했고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되고 카자흐스탄의 건국과 함께 1991년 5월 ‘고려일보’로 제호가 개칭됐다.

1991년까지 모든 면을 한글 가로쓰기 신문으로 발행했으나 1991년 소련 해체로 정부지원이 끊기면서 재정 위기를 겪기도 했다. 특히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 한글을 아는 독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고려인 동포 사회를 연결하는 언론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고려일보는 낯선 땅에서 모국어를 지켜내 고려인 공동체를 견인해 왔다는 평을 받는다.

고려일보 기획전 이외에도 문화관 1층 상설전시실 작은 극장에서는 호남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이 진행하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온 사람들’ 특별전도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

토요 가무악회 ‘그린국악’ 첫 시즌 돌입

도립국악단, 5월까지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전남도립국악단(사진)은 내달 4일부터 토요 가무악회 ‘그린국악’ 첫 시즌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래·춤·연주·연희가 합쳐진 가무악회 ‘그린국악’ 무대는 5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특집 공연들을 다수 마련했다. 4월22일에는 장애

인의 날을 맞아 ‘음악의 사랑을 받을 자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장애 전통예술인과의 협연 무대가 진행된다. 5월5일과 6일 양일에는 어린이날 특집으로 국악놀이노래 콘서트 등 어린이 관객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 외에도 여순사건, 제주 4·3항쟁 75주년, 세월호 참사 9주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등을 반영한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관람료 1만원이다. 예매는 (061-980-9955)로 문의. 도선인 기자

김만옥 화백, 순천대에 한국화 100점 기증

순천대박물관서 5~6월 전시회

지역 대표 역사화 작가인 김만옥(사진) 화백이 순천 역사를 그린 한국화 100점을 순천대에 기증했다.

국립 순천대학교는 지역 대표 역사화 작가인 김만옥 화백이 순천대 박물관에 한국화 100점을 기증, 오는 5~6월 특별 전시회를 열어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화백은 최근 순천대를 방문해 고영진



총장과 이종수 박물관장을 만나 순천 역사를 그린 한국화 작품 100점을 순천대박물관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김 화백은 순천의 역사를 담은 그림을 뜻깊은 곳에 전시하고 싶다는 생각에 순천대에 기부하게 됐다”며 “작품을 통해 학생들과 지역민에게 지역의 역사를 쉽고 재밌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진 순천대 총장은 “특별전회를 마련해 순천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김만옥 화백은 순천 출신 작가로 개인전, 초대전 및 그룹전 등 350여회 출품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및 각종 공모전 심사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또 2021년 2월 미술로 보는 한국 근현대 역사전, 한·중·일 미래 융합 페스티벌 동아시아 문화도시 터키니발 등에도 참여했다. 순천-배서준 기자